

2021년
고3 4모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문학 동맥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 수능형 문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맡겼
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
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뺀고 등
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얹어져 죽는 한이 있
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
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
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
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
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펄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
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
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
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
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

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을 원망하면서 절망으
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
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
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
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
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
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
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
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
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 나온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으로 했다
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
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
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
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
나 봉자보다도 장딴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쩌지 못할 일이
였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뿐, 내
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
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
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
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㉔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㉕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㉖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동백'

[학평 변형 문제]

1. ㉗과 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㉗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㉘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기 위해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
 - ② ㉗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였고, ㉘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였다.
 - ③ ㉗은 현재 시제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㉘은 과거 시제를 통해 과거 사건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㉗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㉘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㉗은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고, ㉘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인물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욕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꿈을 잃은 분욕이의 절망적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③ ㉢: 가을이라는 계절로 인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느끼는 봉자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다.
 - ④ ㉣: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길순이의 미안함을 엿볼 수 있다.
 - ⑤ ㉤: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안심하게 된 여공들의 안도감을 엿볼 수 있다.

[학평 변형 문제]

3. 유식한 연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실제로 마련은 했었다.
 - ② 여공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여공들의 월급 전부를 회사에 맡겼다.
 - ③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평소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게 되었다.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를 경리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⑤ 여공들의 월급을 함부로 사용하기 위해 사장은 법을 마음대로 바꾸었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 ① 분욕이가 만 오천 원이 모자라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과거의 일을 통해 노동자들의 꿈의 실현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봉자에게 돈벌이를 강요하는 향수를 통해 도시 노동자들에게 떠난 고향도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어 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돕는 세력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꾸준히 노력한 성과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5~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 먹구름이 끼고 ㉡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뺐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갈을 물고 엮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펄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보지 못한 ㉢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건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

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 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온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판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 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 짜리 켓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㉞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동맥'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여 사건과 인물의 심리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리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여공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 ② 관리과 직원들은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 ③ 사장은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을 하고 격하게 분노했다.
- ④ 여공들은 자신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다.
- ⑤ 지옥탕에서 일을 하면 신선놀이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7.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
- ② 언어의 음악성을 부각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③ 작가를 대신해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주로 전달한다.

8.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분옥이가 이루고자 하는 꿈
- ② 분옥이, 봉자, 길순이 그동안 모은 돈
-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잘못을 용서한 이유
- ④ 봉자가 서울에서 돈벌이를 작정한 이유
- ⑤ 길순이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을 때의 나이

9. ㉠~㉥ 중에서 그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 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울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 ① 윗글과 <보기>의 서술자는 모두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② 윗글의 서술자와 달리 <보기>의 서술자는 사건의 모든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의 서술자는 전지적인 위치에 있다.
- ④ 윗글의 서술자는 <보기>보다 인물들의 내면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
- ⑤ <보기>의 서술자와 달리 윗글의 서술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11. 윗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갑갑하고 괴로운 상황을 드러낸 부분은 마치 서정 갈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 ③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인물들의 모습에서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기억나기도 했다.
- ④ 작품이 진행되면서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 ⑤ 인물들의 상황과 심리에 대해서 서술자가 대부분 말하고 있어서 내가 직접 상상하는 재미는 조금 부족했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뺀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펄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⑥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온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⑦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딴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

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꺾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⑧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오,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

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 총무부장과 ㉢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동맥'

1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일생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희화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작품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 이야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길순이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다.
 - ② 경리과장은 진심으로 여공들의 상황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다.
 - ③ 총무부장은 경리과장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사람이다.
 - ④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 ⑤ 분옥이는 미용실 점포를 차리기 위해 모은 칠만 원을 떼이게 되자 절망한다.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빨리'의 방언.
 - ② ㉡ : 보람이 없고 허무함.
 - ③ ㉢ : 움벌레 따위에 의하여 살갓에 진물이 나는 염증.
 - ④ ㉣ :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여 구차하고 웅색함.
 - ⑤ ㉤ : 임금이나 가격, 요금, 정원 따위의 변화를 어떤 수준에서 고정시킴.

15. <보기>의 작가가 윗글의 ㉠~㉣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① 소외된 자의 아픔을 슬퍼하는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 ② 당신들은 여공들에게 평등한 웃음을 보내지 않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군요.
- ③ 가난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함박눈이 내리는 것처럼 당신들도 여공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 ④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여공들을 이기적으로 대하는 당신들에게 '슬픔'의 힘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 ⑤ 당신들은 마치 추위 속에서 힘들게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는 모습처럼 이기적이군요.

서술형 문제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뺐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펄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온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

나 봉사보다도 장판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건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껌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

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동맥'

16. ㉠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을/를 통한 ~ 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17. ㉠의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18. ㉡과 관련된 분옥이의 심리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분옥이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할 것.

19. 이 작품의 시점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이 작품의 시점은 ~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20. ㉢의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정답 및 해설

내신 · 수능형 문제

1. <답> ①

㉠은 '먹구름'과 '비'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은 '먹구름'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답> ①

㉢에서 '분옥이'는 자신이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인 '오만 오천 원'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으므로 적절하다.

㉣ ㉤에서 '분옥이'는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정신'이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에서 '봉자'는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던 '삼만 원'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해 함을 엿볼 수 있다.

㉧ ㉨에서 '길순이'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자꾸 눈시울'이 '매워'진 것이지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여공들'은 '경리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동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공들'이 절망감을 느낀 때는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답> ④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 년째 되는 해부터' '회사'에 맡긴 '원금'을 찾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5. <답> 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① 행동의 묘사와 대화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이 작품의 분위기는 암울하고 우울하다.

6. <답> ③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분노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 짬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답> ③

이 작품은 소설이므로 작가를 대신해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① 교술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8. <답> ②

분옥이는 오만 오천 원, 봉자는 삼만 원을 모았음을 알 수 있지만, 길순이가 그동안 모은 돈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① 분옥이의 꿈은 미용사가 되는 것이다.
- ③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걱정한 나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열일곱에 떠난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답> ③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의미하고, ㉡는 분옥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므로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10. <답> ④

윗글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보기>보다 인물들의 내면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

- ① 윗글은 작품 밖에, <보기>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위치한다.
- ② 사건의 모든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윗글이다.
- ③ <보기>의 서술자와 달리 윗글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므로 전지적인 위치에 있다.
- ⑤ <보기>의 서술자와 달리 윗글의 서술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11. <답> ④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계속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12. <답> ④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분옥, 봉자, 길순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① 특정 인물의 일생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변하지 않는다.
- 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작품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13. <답> ①

길순이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들을 위해서 분옥, 봉자보다도 더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 ② 경리과장은 진심으로 여공들의 상황을 걱정하고 위로하지 않는 위선적인 인물이다.
- ③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사람이다.
- ④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분옥은 미용실 점포를 차리기 위해 칠만 원을 모으지는 못했다.

14. <답> ④

㉠ : 궁리하여 찾아냄.

15. <답> ③

이 시의 화자가 당신들이 여공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보기>에서 '함박눈'은 가난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내리는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위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고통을 주는 대상이다.

서술형 문제

16. <답> 인물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간접 제시이다.

17. <답> 자신의 꿈을 위해 쓸 돈이었기 때문이다.
18. <답>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욕이 느껴는 설렘을 드러낸 것이다.
19. <답>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0. <답> 모은 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704-7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1
가격 1500원

